

공동체가 함께 협의하고 해결하는

마을주차



2015. 11.



광주광역시

공동체가 함께 협의하고 해결하는 마을주차

과제 분류	집중육성과제	주관 기관 (협업/관련 기관)	광주광역시 참여혁신단
과제 담당자	김재철 단장 (손명희 주무관)	담당자 전화번호	사무실 : 062- 613-6231 H.P : 010-6692-5535

가. 현황 및 문제점 (Problem)

- (정책고객 애로점) 급증하는 주차수요 대비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다양한 사회문제 대두

* 광주광역시 주차장 보유실태(2014. 12월말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	주차장 보유현황			부족 주차장
	합 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593,456	549,009	12,789	35,031	48,000

- 도로 양면주차 및 보행로 주차, 이중주차 등으로 보행불편 및 안전문제 발생



- 주차시비로 이웃 간 갈등은 물론 폭력 등의 범죄로 비화
- 특히, 구도심, 단독주택, 상가 밀집지역 등은 주차문제가 더욱 심각하여 거주 기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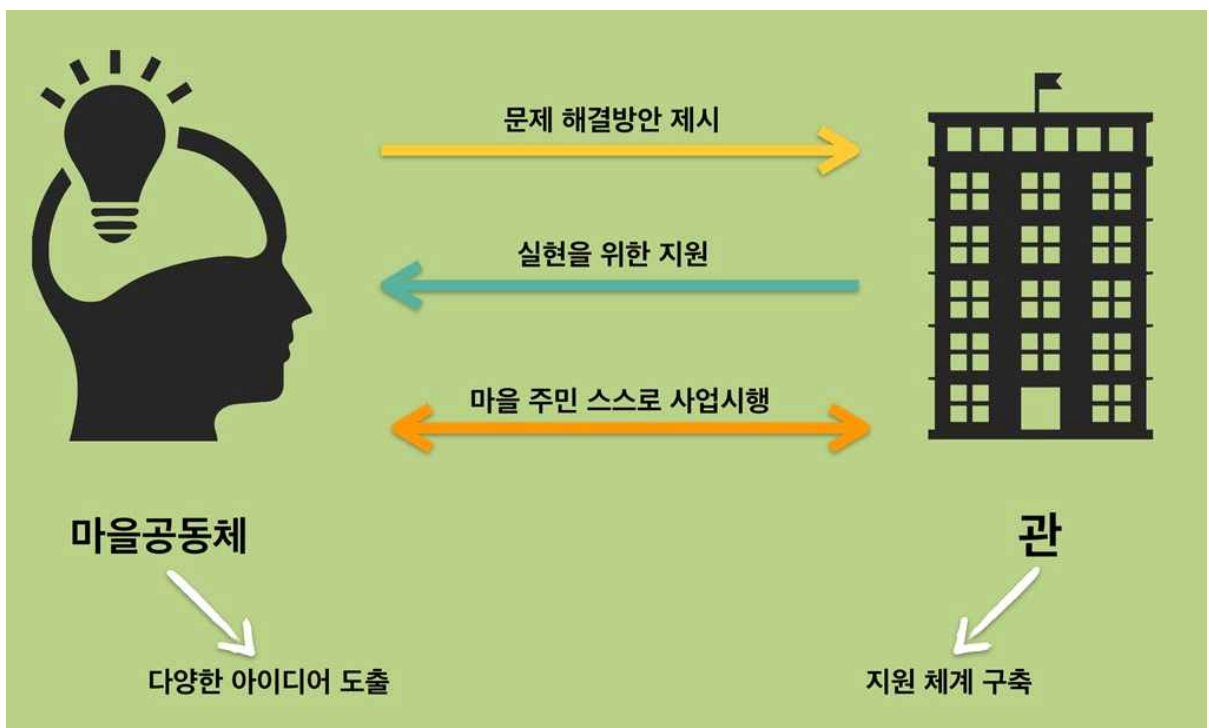
※ 2015년 우리시 설문조사

구도심에서 가장 불편한 점은? (1위) 주차문제 (2위) 쓰레기 문제

- (기존정책 미흡점) 공영주차장 확충, 주차단속 강화 및 과태료 부과,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 등 관 주도 방식의 다양한 주차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주차환경개선 미흡하고 시민 만족도 낮음



-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주도 모델 연구 필요성) 기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인식제고 등을 위해 주차문제의 당사자인 주민들이 모여 토론과 협의를 통해 해결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모델 연구



나. 정책 추진 내용 (Solution)

- ◆ (정책 목표) 날로 심각해져 가는 마을주차 문제를 주민들의 토론과 협의를 통해 해결계획을 세우고 실천함으로써 주차문제 해결 및 주민자치활성화
- ◆ (주요 고객) 일반국민
- ◆ (추진기간) 15년 ~ 지속추진
- ◆ (소요예산) 총 543백만원(15년 ~ 17년까지)
- ◆ (추진체계) 국민디자인단 구성·운영 → 시범사업(2개마을) 실시 → 시범운영 → 모니터링 및 평가 → 모델화

- (주민주도 마을주차 해결 모델 창출) 마을 주차문제를 주민의 토론과 협의를 통해 스스로 해결방안을 찾아 시행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 확산 가능성 모색
- (시범시행) 마을주차에 관심이 있는 마을 2곳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여 모델화 (국민디자인단 추가)
 - ① 도내기 마을
 - * 주민협약(차량진입제한), 주차개선 문화활동, 마을주차규약
 - ② 풍암동 주민자치위원회
 - * 공한지 활용 마을주차장, 한쪽면 주차 실시, 마을주차규약 등

시범시행 사례 : 도내기 마을, 풍암동 주민자치위원회

1. 추진배경

- (도내기문화마을) 대학과 중·고등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조선대 후문 지역으로 교통체증과 복잡한 주차환경으로 교통환경 열악
 - 위험한 보행환경에 노출된 학생들과 주변 상가들의 영업, 학생들의 자동차주차로 혼잡한 지역으로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만성적인 교통체증과 보행자와 차가 뒤섞이는 환경이 지속되어 옴

(대상지 사진)



○ (풍암동) 풍암1지구는 거주 주민 외 많은 유동 인구 및 내·외부 노점 상인들로 인한 불법주정차가 심각한 지역

- 풍암2지구는 2003년 택지개발 당시 일반주택지로 조성되어 대부분이 원룸으로 건축되어 쓰레기와 주차문제가 심각하고, 도로전체가 편도 1차선으로 개설되어 교통체증이 심함

* 풍암 2지구에서는 심각한 주차문제로 상가번영회를 중심으로 2012년부터 한쪽 주차제 시범 운영

2. 추진내용

○ 주민회의를 통한 마을주차 해소방안 도출 (국민디자인단 추가)

- 마을주민들이 모여 마을 주차문제 현황조사 및 토론

* (도내기마을) 주차문제와 보행로확보를 위해 조선대학생회와 상가번영회, 주민자치회, 청년활동가가 모여 문화적 활동과 주민총회를 통해 마을의 현안을 풀어가야 한다는 논의 이끌어냄

(주민총회 결정사항)

⇒ 가장 심각한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차없는 거리를 만들어 보고 마을 주차규약을 만들고 주민참여 캠페인 등 문화활동을 벌이기로 결정

- * (풍암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상가번영회, 동주민센터, 주민이 모여 주차문제 현황조사 및 시범실시 중인 편도(한쪽)주차제 평가

(주민총회 결정사항)

⇒ 한쪽 주차제 시범운영 지구를 확대하고 보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 공한지를 대상으로 마을주차장을 설치키로 주민총회에서 결정

○ 주민회의(주민총회) 통한 주민주도의 문제해결 (국민디자인단 추가)

- 주민자치를 통해 마을의 가장 큰 민원을 해결해 가고, 이것의 구심체로서 마을주민이 상시적으로 모여서 논의하는 구조인 주민회의를 구성·운영

- * 참여주체는 주민자치위원회, 상인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동행정, 마을 활동가 등 열린 구조로 운영

- * 분기별 주민회의 개최

- * 회의진행방식은 열린구조로 하고, 원탁회의나 브레인스토밍 등을 활용

○ 한쪽 주차제 확대시행 (국민디자인단 보완)

- 풍암2지구 기존 지구에서 확대 및 풍암1지구 까지 확대



- 마을공한지를 이용한 마을주차장 조성 (국민디자인단 추가)
 - (풍암동) 공한지를 조사·대상지 리스트를 작성(23개)하여 토지 소유주와 접촉 통해 일정기간 공용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동의를 얻어 마을주차장 조성(3개 조성)
 - * 동주민센터의 협조하에 토지소유주와의 접촉쓰레기와 불법투기물을 처리해주는 조건으로 일정기간(토지사용시까지) 사용하는 계약 체결
 - * 제한된 공간에 최대한 많은 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공간설계
 - * 사용기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최소비용으로 친환경적, 철거가 쉬운 구조로 공공디자인 적용 조성

- 차량진입 제한시간 운영 및 주차금지 캠페인 (국민디자인단 추가)
 - 당초 주민회의 통해서 차없는 거리를 조성키로 하였으나 추진과정 중 반대의견 등으로 차량진입 제한시간 운영키로 함
 - * 탈부착 가능한 이동식 블라드 설치, 취약한 벽면 벽화설치
 - * NO 주차금지 캠페인, 플래시 몹 등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등

- 마을규약을 통한 지속적이고 책임 있는 실천 (국민디자인단 추가)
 -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주민회의 통해 마을규약 제정 및 실천
 - * (풍암동) 인근 식당이나 원룸 등에 의해 제한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규칙을 마련하여 주차장 벽면에 알리고, 불편사항이나 관리는 인근 건물에서 자율적으로 역할분담하는 구조로 운영
 - * 회원제 운영방식 등을 통한 최소 운영비 확보 등은 법적 책임 등의 한계
 - * 편도주차 운영관리, 마을주차장 운영관리, 시간제 차량이용제 등

- 마을공공디자인을 통한 주민 인지도 향상과 이용확대 (국민디자인단 추가)
 - 마을주차장 설계는 물론 주차봉, 차량차단 구조물, 보행자 안전존, 마을주차장 안내판, 주민회의 홍보물 등에 통일되고 조화로운 디자인을 마련·적용하여 하나의 브랜드를 창출

□ 마을 주차 정책실행 모델개발 (국민디자인단 추가)



다. 정책 추진 일정 (Action Plan)

- 도네기 마을과 풍암마을 지속 모니터링 : ' 16년
 - 동구와 서구 마을지원센터, 마을코디 통해 지속 관리 및 모니터링
- 마을주차 스토리 북 발간 및 보급 : ' 16년
 - 우리시 마을공동체 및 타 지자체 확산을 위해 사례집 발간·보급
 - 마을주차문제 조사방법, 주민총회 과정, 사업 추진과정, 마을규약 제정과정 등 전 추진 전과정 기록
- 체계화된 “마을규약” 과 “주차장 운영과 관리매뉴얼” 작성 및 보급
 - 마을규약 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다른 사례 에도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 스토리 북” 에 소개

- 공한지 활용 마을주차장 조성 : ' 16년~
 - 공한지로 방치된 땅의 소유주를 추가적으로 찾고, 접촉하여 마을 주차장이 차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비와 행정지원
 - 2016년 광주시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 지속지원
- 주민이 스스로 해결하는 “마을주차” 공모사업 시행 : ' 16년 ~
 -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을 통해 공모추진
- 광주시 마을공공디자인 통합시안 작성 및 보급 : ' 16년 ~
 - 마을사업에 관련된 홍보물, 시설 등에 응용할 수 있는 광주시 마을 공동체 표준시안 등을 작성하여 보급

< 연도별 주요 이행계획 >

	'14년	'15년	'16년	'17년
주요 이행 계획	- 풍암동 주민 자체적으로 한쪽 주차제 시범운영	- 마을주차 모델 발굴 사업 지원 · 도네기마을 : 17백만원 · 풍암동마을 : 26백만원	- 마을주차 공모사업 추진 - 마을공동체 스토리북 (매뉴얼) 제작과 보급 - 마을공공디자인 통합시안 작성	- 마을주차 공모사업 추진 확대
소요 예산	사업비 : 없음	사업비 : 43백만원 (2개마을)	사업비 : 200백만원 (5개마을)	사업비 : 300백만원 (10개마을)

라. 기대 효과 및 정부3.0 가치

- (기대효과)
 - 관 주도 행정에서 주민중심 “자치와 거버넌스로”
 - 주차단속이나 중앙분리봉 설치 같은 강력한 규제중심의 문제해결에서 주민이 스스로 협력하여 해결하는 자치가 생활 속에서 실천되고, 이를 통해 주민이 체감하는 자치의 효과성이 높아짐

- 불법주정차 차량감소 및 주차관련 민원감소, 교통흐름 원활
 - 편도주차 실시 후 불법주정차 감소 및 민원감소
 - 같은 시간대 정체되던 구간이 원활한 공통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주변 도로를 이용하던 차량의 이용이 늘면서 전보다 이동차량이 많아짐
 - 주민이 마을주차장을 꾸준히 이용하고 만족도가 매우 높아 적은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보고 있음
- 주민 주거만족도 향상
 - 편도주차 실시 후 불법주정차 감소로 도로 환경이 쾌적해지면서 주민들의 주거만족도가 개선됨
- 주민회의를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
 - 주민회의 통해 주민참여채널이 상시화되면서 다양한 마을의제가 논의되고, 주민회의를 통해 마을사업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추진
 - 주민들이 체감하는 공동체 활동이 전개되면서 다양한 주민참여가 가능해지고, 그 과정에서 주민조직들이 결성되고, 관계성도 높아져 마을의 공통의 문제에 협력하는 거버넌스 작동

□ (정부3.0 가치)

- 규제와 통제위주의 행정주도에서 주민자치를 통한 적극적 문제해결
 - 다양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지역현안을 규제와 통제에 의해 단속하던 행정중심주의에서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하고 동의하는 자치사업으로 해결해가는 발상의 전환과 창의적 방식의 실천이 주민생활 속에서 실천
- 개인의 소유물에서 공공의 공유재로 가치확장
 - 방치된 개인소유의 공한지와 주차봉 등의 사유재가 주민과의 협력과 동의를 통해 주민 모두가 공유하는 공간과 물건으로 사용됨으로서 가치가 확장되고 공공의 선으로 연결
- 단순 문제해결방식에서 지속적 책임과 실천으로
 - 지역의 현안이 일시적 처방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는 책임있는 장치와 실천노력으로 유지관리

< 정책 추진 전과 후 비교 >

구 분	활 동 전	활 동 후
추진주체	관 주도 (행정중심)	주민주도(주민자치회, 상가번영회, 학생회 등 당사자그룹)
추진방향	단속과 통제 (방치되거나 주차단속으로 주민 피로도 높음)	주민자율과 자치규약 (주민회의 통해 주민스스로 마을주차 해결방안 모색)
추진방법	행정 주도	주민회의와 공모 (주민이 제안하고 행정이 지원)
정책내용	획일적, 강제적 (공영주차장 확충, 주차단속, 주차금지봉, 내집 주차장 갖기 등)	지역, 마을의 상황에 따른 다양한 해결방안 마련 (공한지 주차장 조성, 한쪽 주차제, 차량진입 제한, 주차 주민규약제정 등)
참여도	수동적, 무관심 (단속과 통제로 수동적 대응)	적극적, 공감과 체감 (마을주차 규약 통해 스스로 준수)
주민인식	주차문제 해결은 행정에서 해줘야 하는 일	마을의 일은 우리 스스로 해결한다는 인식전환
만족도	낮 음 (단속과 통제 위주)	높 음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요에 기반한 주차문제 해결)
예산투입	대규모, 고비용(공영주차장), 효과미흡	소 액(공한지활용 마을주차장), 저비용 고효율

마. 홍보 계획

□ 홍보계획

- 2015 마을주차 시범사업 성과 기획보도 2회(12월)
 - 도내기 마을(1회), 풍암동(1회)
- 시 발간 마을공동체 사례집 발간시 마을사례 게재(' 15년 12월)
- 2016년 마을주차 공모사업 홍보(' 16년 1월)
 - 보도자료 배포, 시, 자치구 홈페이지 배너광고 등
- 2016 광주시 마을공동체 스토리북 등 발간 · 배포(' 16년 5월)
 - 보도자료 배포, 시, 자치구 홈페이지 배너광고 등
- 2016년 마을주차 사업 기획보도(' 16년 8월)
- 시 발간 마을공동체 사례집 발간시 마을사례 게재(' 16년 12월)
- 2016년 마을주차 성과 보도(' 16년 11월)

□ 주민대상 자치교육 및 광주마을학교 운영 필수과목 편성

- 우리시 주민대상으로 하는 마을학교에 「마을주차」 과정운영
- 우리시 운영 주민대상 「주민아카데미」 강의

(Before) 대학가 후문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피곤한 상가씨”는 새벽녘에 쓰레기가 튀구는 가게 앞을 치우는 일로 하루를 시작한다. 곧이어 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이 되면 주차하는 차들과 그 차들을 피해 아슬아슬 걸어가는 학생들, 상가를 이용하는 손님들이 섞인 복잡한 도로를 보며 높은 피로도도와 불안감을 느낀다.

또 다른 주민인 이 학교를 졸업한 “마을활동가 나청년”군은 후배들이 무질서한 주변 환경 속에 지내는 것이 안타깝지만, 누구하나 개선해보려고 나서지 않는, 어떻게 문제를 개선시켜야할지 방법도 모르겠다. 가장 먼저 안전한 보행로를 만들어야한다는 생각에 방법을 궁리하고 있다.

마을 안쪽에 아파트가 더 들어서고 나서는 도로가 주차장이 된 풍암동에 사는 “워킹맘 걱정녀”는 출퇴근길 전쟁을 치른다. 걸어서 가도 5분이면 갈 거리를 10분이 훌쩍 넘게 길이 막히고, 도로양쪽에 주차된 차들로 접촉사고라도 날까 매일 신경쓰느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오는 길이 늘 신경쓰이지만, 생각날 때마다 구청에 주차단속 요청 민원을 넣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

“불금남 딱지군”은 매주 금요일이 되면 즐겨가는 식당이 있는 풍암동에서 친구들을 만난다. 식당주차장은 좁은지라 그는 차를 주차할 공간을 찾는 것이 제일 큰 고민이다. 보통 동네를 몇바퀴는 돌아야 겨우 주차가 가능하고, 운이 좋으면 식당 앞 도로에 주차를 한다. 차들이 다니기 힘들다는 건 알지만 마땅히 주차할 공간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즐거운 불금을 보냈지만, 주차단속에 걸려 딱지라도 날아오는 날은 억울하기 짝이 없다. 주차단속 딱지를 볼 때면, 주차장도 없이 차들만 많은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난다.

풍암동에 사는 “구석구석 관심녀”는 마을 길을 걸을 때마다 원룸이나 식당 옆 쓰레기가 가득한 채 방치된 공한지가 신경쓰인다. 여름엔 냄새나고 쥐가 사는지 지저분하기 짝이 없는데다 한밤중엔 지나가기 무섭기까지하다.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방치된 땅을 저렇게 놔둬도 되는 건가 늘상 불만이다.



(After) 마을 주민자치회에서 “주차문제해결을 위한 주민회의”를 한다는 홍보프랑카드를 보고, “상가씨”와 “나청년”, “걱정녀”와 “불금남”, “관심녀”가 관심을 갖는다.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니 평소 생각했던 주차문제에 대한 생각을 이 기회에 이야기하고 싶어졌다.

“주민회의”에 모인 주민이 생각보다 많다. 그만큼 주차문제에 관심이 많은가보다. 어색한 분위기도 잠시, 여기저기서 주차와 관련한 하소연이 쏟아져나온다. 하소연이

끝나자 행정의 단속에만 의지하지 말고, 주민이 스스로 생활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오기 시작한다. “상가씨”는 상가번영회가 중심이 되어 한쪽 주차를 실시해 보자고 한다. “걱정녀”는 아파트 부녀회와 입대위도 주차캠페인에 참여하자고 한다. “관심녀”는 인근 골목에는 쓰레기로 뒤덮혀 있던 공한지를 활용해 “마을주차장”을 조성하자고 한다. “나청년”은 학생들과 차들이 뒤섞여 정신없던 학교후문을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고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을을 모으는 문화활동을 통해 실천방안을 도출해보자고 한다.

“상가씨”와 “나청년”, “워킹맘”은 “마을 주민회의”에 참석하여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다른 주민들과 이야기하면서 “편도주차”와 “시간제주차”, “보행로 확보”, “마을주차장 조성”이라는 동의안을 도출한다.

국민디자인단은 주민들의 제안이 실천되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으로 “마을규약”과 “운영매뉴얼”마련을 제안한다. 동의된 안이 지켜질 수 있도록 상가번영회와 주민자치회, 아파트입대위와 부녀회, 학생회가 함께 주차봉을 설치하고 격일제로 이동하는 약속, 정해진 시간에 자동차를 이용하고 그 외에 시간엔 학생들의 보행로를 지켜주는 약속, 공한지를 이용하여 마을주차장을 조성하고 관리운영하자는 약속을 주민회의에서 “마을규약”으로 정한다.

마을주차봉과 주차장은 마을의 재산이고 약속의 실천이라는 의미에서 색깔과 디자인을 주민이 결정하고 홍보하여 주민들이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공공디자인적 요소도 결합한다.

“워킹맘”은 마을규약이 만들어진 후로 훨씬 원활해진 출퇴근길이 즐겁다. 아파트부녀회원들과 주차봉 이동 봉사를 같이 하기로 했다. “불금남”은 알아보기 쉬운 마을주차장 안내판을 보고, 마을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주차위반딱지 걱정없이 마음 편히 금요일 저녁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상가씨”는 장사가 더 잘되는 요즘이 신난다. 학생들의 표정도 더 밝아졌다.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 “하면 되는” 일이 된다는 것을 주민모두가 알게 된다. “자치”는 어렵고 먼 이야기가 아니라 생활 가까이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인 것을 알게 된다.

공동체가 함께 협의하고 해결하는 마을주차 사례는 좋은 모델로 과정이 정리되어 광주시 마을공동체 스토리북을 통해 다른 마을로 확산된다.

■ (미션) 광주광역시 마을공동체를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를 역점적으로 추진

- 마을의 현안을 논의하고, 스스로 풀어가는 “주민회의” 보급
- 지속적인 활동과 실천을 약속하는 “마을규약” 마련
- 마을 활동과 마을자산을 알리는 “마을공공디자인” 제공

■ (디자인단 구성) 서비스디자이너, 전문가, 일반시민, 대학생, 사업담당 공무원 등 5명~7명

구분	성명/소속/직위	연락처/이메일	활동 소감
서비스 디자이너 (집중과제)	민현정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010-4608-6581 hjmin@gji.re.kr	- 현장의 주민과 함께 논의하고, 도움을 드리는 과정이 의미 있었음 -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국민디자인단의 의미있는 성과가 확장되었으면 함
전문가	조동범 교수 (전남대학교)	010-8625-9025 tobcho@chonnam.ac.kr	- 주민들의 공공디자인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됨
정책 수요자	민태홍 (주민) (풍암동주민자치회장)	010-3635-0070	- 편도주차실시와 마을주차장 마련을 위해 주민을 만나고, 함께 참여했던 시간과 노력이 정말 보람찼다.
	김희광(주민) (풍암동상가번영회)	010-8604-9900	- 마을주차장마련을 위해 수십번의 회의와 고민을 했지만, 이용객이 많고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 기쁘다.
	정의춘(활동가) (마을공동체지원센터)	010-4619-3125	- 주차난과 교통체증으로 유명하던 풍암동이 마을의 가장 큰 현안을 주민의 협력으로 해결해가는 과정을 계속 지원하겠다.
	강수훈(활동가) (청춘아고라)	010-9899-5179	- 후배들에게 더 나은 보행환경을 마련해줄 수 있고, 갈등의 과정을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풀어갔던 과정이 보람찼다.
	김성찬(활동가) (청춘아고라)	010-6765-6380 chansgceo@gmail.com	- 주민회의가 마련되고, 규약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주민과의 신뢰가 커지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됐다.
주관부서 (사업담당)	손명희 주무관 (참여혁신단)	062-613-6231 soun6691@korea.kr	- 두 대상지 모두 다양한 주체들이 상호협력하는 과정에 국민디자인단이 함께 해서 의미가 컸다.

* 정부3.0 담당 : 참여혁신단 손두영사무관

■ (아이디어 제안) 마을공동체 전문가, 주민자치회장, 상가번영회장, 마을활동가, 청년문화기획자 등 “마을”이라는 공통된 대상으로 묶인 다양한 영역의 구성원들로 그만큼 기획과 실천력이 담보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마을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인 주차와 쓰레기 민원은 행정이 단속하고 통제하는 방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매일을 살아가는 주민이 생활 속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은 공간에서 각자 생활하고 있는 주민이 모여서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마을 구성원들이 협력하기 위해서는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갈등을 재미로 승화시키는 방법이 함께 병행되었으면 한다”

“마을에서 함께 고민한 프로그램이나 성과들은 주민과 공유되기 쉽지 않다. 알고 있는 주민은 알고, 모르는 주민은 계속 모르는 상황의 연속이다.”

이래, 상기 문제 해결을 위해 아래의 아이디어가 제안되었습니다.

- ① **마을주민총회를 정례화**하여 마을주민이면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다른 주민들의 생각과 교환할 수 있는 안정된 주민참여 채널을 마련. 주민회의를 통해 **마을의제를 발굴하고, 계획을 세우도록 함** (제안자 : 민현정)
- ② 지속적인 주민참여와 실천을 담보하기 위한 하나의 약속으로 **마을규약과 운영매뉴얼**을 마련하고자 함 (제안자 : 손명희)
- ③ 마을활동의 내용과 결과를 주민 모두가 같이 인식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시각적 식별이 가능한 디자인적 요소를 결합시키도록 함 (제안자 : 조동범)

■ (활동중 에피소드)

(에피소드 1) 처음 마을총회를 시도할 때, 상가번영회와 학생들간의 감정적인 충돌이 예상되는지라 녹화용 카메라를 설치하여 발언이나 행동을 서로 지켜가는 과정도 있었고, 어른들이 학생들을 나무라는 등 어색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으나 이야기가 거듭될수록 서로의 말을 들어주는 친밀한 분위기가 조성됨(김성찬 팀원)

(에피소드 2) 편도주차봉 격일제 시행이 생각만큼 잘 운영되지 못했고, 상가들의 협조도 영업을 하는 이들에게 부담을 주는 상황이 전개되어 민태홍 팀원(풍암동 주민자치위원장)인근 아파트와 자원봉사센터 등에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참여주체가 많아짐

(에피소드 3) 공한지에 마을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23개의 대상지를 검토했지만, 토지소유주를 찾더라도 동의를 얻어내기 힘들어 김희광 팀원(풍암동 상가번영회)의 고충이 컸다. 최종 동의를 얻은 두 개의 대상지에 쓰레기를 치우는 날, 동네에 살고 있는 쥐는 모두 본 것 같다는 말이 나올만큼 많은 쥐가 쓰레기더미 속에서 나와서 모두가 놀랐던 일도 있었음

- **(실행) 2015년 국민디자인단과 함께 마을총회, 마을규약을 주민과 함께 기획하고, 만드는 것을 목표로 11월 중 주민회의에서 그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며, 마을공동디자인은 국민디자인단에서 제안한 내용을 시범적으로 시도해보고, 2016년부터는 마을공동체와 관련한 사업과 연계하여 확대 실시하고자 함**

■ (활동 총평)

- 좋았던 점

“공동체가 협력하여 해결해가는 마을주차”는 가장 민감하면서도 시급한 마을현안을 행정의 단속과 통제에 의지하지 않고, 주민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문제의식과 마을의

문제를 “직시”하는 정직한 노력이 시도된 사례라서 더 큰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 단순한 실천사업으로 접근하지 않고, 하나의 시스템을 마을에 접목함으로써 “마을주민회의”와 “마을규약”, “마을공공디자인”이라는 의미있는 시도들이 전개되었고, 지금은 낯설지만 마을 안에 정착되는 과정을 거치면 주민자치의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고, 모범적인 사례로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가 국민디자인단 구성원 모두에게 공감되었다는 점이 가장 좋았다.

- 아쉬웠던 점

두 개의 대상지에서 두 팀으로 구성된 디자인단이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상호교차 워크숍이나 공감워크숍이 충분히 내실있게 추진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

- 향후 개선/희망 사항

- ① 마을의 주민이 한자리에 모이고,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주민회의를 한차례 갖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만남이 전제되어야 한다. 단순한 가상의 시나리오가 아니라 이것이 현장에서 실천되는데는 많은 변수와 갈등이 만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장에서 실천되는 성격의 과제는 그 실천 하나하나의 과정과 문제해결노력이 기록되고, 정리되는 것에 의미를 더 둘 필요가 있으며, 그 내용이 다른 자치단체나 사례에 충분히 전해질 수 있는 정리의 과정에 지원이 있었으면 한다.
- ② 국민디자인단 사업이 다양한 지자체와 주체를 통해 진행되는만큼 각각의 사례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보다 더 잦은 소통의 기회가 마련되고, 그것이 상호학습의 장이 되었으면 한다. 올해보다 많은 상호교차미팅이 보장되었으면 한다.

- 마을주민과 함께한 국민디자인단 워크숍 5회
 - 교차방문워크숍(도내기문화마을, 풍암동마을주차) 각 1회, 총 2회
 - 마을주차 공유공감워크숍 1회
 - 마을주차 공리워크숍 (도내기문화마을, 풍암동마을주차) 1회
 - 자치규약제정 워크숍 1회
- 디자인단 현장방문 및 디자인 회의 5회
 - 현장방문 및 추진원칙, 계획 수립
 - 동 주민센터와의 협의회의 2차
 - 마을주차장 디자인 회의 1차



도내기문화마을 회의진행 구성원 상가변영희, 조선대 학생회, 청년활동가, 국민디자인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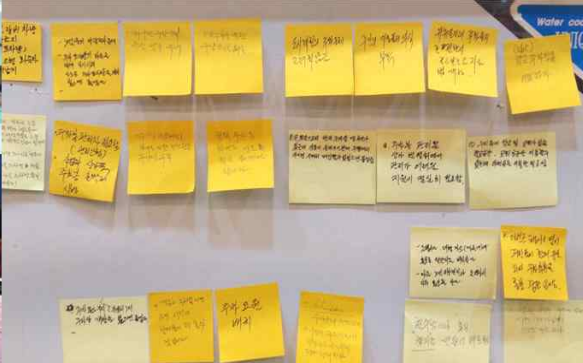


도내기 마을 주민 총회

우리 마을 주자문제 해결 방안 모색

- ▶ 장소 **정순 아고라**
- ▶ 일시 **2015. 03. 25 (수) 오후 4시**
- ▶ 대상 **도내기 마을주민**

주최: 도내기문화마을주민협의회



〈마을주차와 공한지를 활용한 마을주차장 조성〉

기존 정책 서비스

- 통제형 행정 : 중앙선 분리봉 설치, 주차단속과 범칙금부과 등
- 소극적 개입과 수동적 대응
- 방치형 주민, 주민간 갈등과 불편의 반복
- 자기편의와 이익중심형 토지와 건물 소유주, 상가운영자, 주민과 학생

수요자의견

- 주민 스스로 마을현안해결을 위해 마을주체간 협의와 대안을 모색하자!
- 당장의 불편함과 번거로움을 이겨내고, 더 나은 마을환경을 조성하자!
- 우리 모두의 자기역할과 책임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자!

인사이트

- “마을”은 거주하고 머무는 사람 모두의 책임성을 바탕으로 공유된 약속이 있어야 한다.
-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상인회, 학생, 부녀회 등 주민조직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 주민이 정례적으로 모여서 공유하고, 토론하고, 합의하는 “주민회의”가 있어야 한다.
- 구체적인 실천과 자기역할을 분담하는 마을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정책대안

- 주민워크숍을 통해 마을 안의 자치를 실천하는 “주민회의”를 상시화
- 주민과 주민조직, 상인회, 아파트입대위, 학생회, 동주민센터 등 다양한 주체 참여와 소통
- 지속적인 마을사업의 추진과 유지관리를 위한 “마을규약”을 작성하고 실천
- 공공디자인과 홍보를 접목하여 “공공재”를 인식하는 마을디자인을 추진

기대효과

- 주민워크숍을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논의구조를 마련
- 소수의 주민중심 마을자치가 다양하고 폭넓은 참여층을 확보
-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운영을 위한 공동체의 룰과 규칙을 보급
- 마을자치활동과 디자인적 요소의 결합으로 주민인식 확대

풍암동마을주차



- 풍암2지구번영회 주관 시행사업인 도로한쪽 주차체가 좋은 성과를 거둠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와 풍암2지구번영회 협의를 통한 향후 지속적 정착 시행 합의
- 풍암1지구 풍암동 주민센터 일대 편도1차 도로의 양쪽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주차금지표지판을 이용한 도로 한쪽 주차체 확대 시행 결정

편도주차봉 설치



마을주차장 기존 사진



기반공사사진



주차장 도면

□ 현황 및 문제점

- 급증하는 주차수요에 대비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시설로 다양한 사회문제 대두
 - 도로 양면주차 및 보행로 주차, 이중주차 등으로 보행불편 및 안전문제 발생
 - 주차시비로 이웃 간 갈등은 물론 폭력 등 범죄로 비화
- 관 주도 방식의 다양한 주차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주차환경개선 미미하고 시민 만족도 낮음
 - 공영주차장 확충, 주차단속 강화 및 과태료 부과, 내집 주차장 갖기 등

□ 추진 내용

- 주차문제의 당사자인 주민들의 토론과 협의를 통해 스스로 해결하고 실천할 수 있는 모델 연구
 - 마을주차에 관심이 있는 마을 2곳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
 - * 도내기 마을, 풍암동 주민자치위원회
- 주요 사업내용
 - 지역 내 마을주차 문제 조사, 주민회의 통한 사업내용 결정
 - 마을공한지 활용 마을주차장 조성 및 한쪽면 주차제 확대(풍암동)
 - 주차금지 캠페인, 차없는 거리 조성(50M), 벽화 플랫폼(도내기)
 - 주민회의 통한 마을규약 제정 및 실천(도내기, 풍암동)
 - 마을주차장, 주차봉, 안내표지판 등 마을공공디자인 시행(풍암동)

□ 향후 계획(일정)

- 마을주차 스토리 북(매뉴얼, 가이드라인 포함) 발간 및 보급 : 16년
- 마을주차 모델 공모사업 추진 : 16년 ~
- 주민총회와 마을규약보급 확대 : 16년 ~
- 마을공공디자인 실시 및 홍보강화 : 16년

첨부5

국민디자인단 도출 성과(정책 아이디어) 실행 계획

도출 성과 (정책 아이디어)	정책 반영 및 실행 계획
① 마을공한지의 공용공간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근거: 광주시마을만들기지원조례) - 2016년~2017년 : 대상지 확대 및 지속지원
② 주민중심 운영관리를 위한 주민조직 활성화 지원과 “주민회의” 정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마을공동체 활성화 모델사업 선정지원 - 2016년~2017년 : 지속지원 및 디자인단 계속참여
③ 마을주차장 등 공공재에 공공디자인 적용 및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광주디자인센터 연계 지원 - 2016년 마을공공자원(재산) 공통디자인안 마련 - 2016년 마을자치활동과 공공디자인 지원 프로그램 연계 및 운영
④ 마을규약 및 가이드라인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광주시마을공동체 활성화지원사업 보급/확대 - 공모사업 책자 등 양식과 사례 등 매뉴얼 제공 - 마을교육프로그램 고정과목화